

전일동향

전일대비 0.10원 상승한 1,418.60원에 마감

13일 환율은 전 거래일 증가 1,415.70(15:30 기준) 대비 1.80 상승한 1,417.50(06: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코스피 상승에 발맞춘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가 환율 상승을 뒷받침하며 전일대비 0.10원 상승한 1,418.60원에 증가(06:0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 장중 변동 폭은 15.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88.19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17.50	1426.00	1410.80	1418.60	1414.90
	엔화	887.42	894.45	885.40	888.19	-
	유로화	1634.73	1642.26	1626.55	1633.26	-
* 시가/고가/저가/종가 : 달러는 익일 06: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46	-2.19	-5.77	-12.29
	결제환율(수입)	-0.15	-1.1	-3.67	-8.61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1,41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6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19.40, 15:30 기준) 대비 0.20원 하락한 1,418.6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심리 및 강달러 압력 완화에 하락 전망한다. 앞서 발표된 미국 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밀돌면서, 연준의 금리 동결 기대감이 강화되며 나타난 약달러 심리를 반영하여 금일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가 하락과 간밤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세 보임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또한 금일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과 수출업체 네고 물량 출회 가능성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판단된다. 다만, 환율 단기 낙폭 과대인식과 1,410원대에서의 강한 지지력이 작용하는 가운데, 여전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화 약세 흐름이 원화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409.75 ~ 1421.75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1102.1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20원 ↓
	■ 美 다우지수 : 53839.99, +69.72p(+0.1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235.0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4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